

완도 '괴물 공포' 사라져

멧돼지 5마리 포획 후 피해 없어

완도 생일도에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포획된 후 염소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주민들을 불안에 끌게 했던 정체 모를 '괴물은 야생 멧돼지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도군 생일면사무소 관계자는 11일 "지난 10월 12일 염소를 잡아먹는 200여 kg이 넘는 거대한 멧돼지를 잡은 후 지금껏 모두 5마리를 포획했다"면서 "2~5일 간격으로 한 마리씩 헤생되던 염소도 지난 달부터 피해 보고가 들어 오지 않는 등 평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일도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산

짐승의 습격을 받아 애써 기운 염소 수십 마리가 헤생되면서 공포에 떨어웠다. <본보 8월 24일자 6면>

완도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무원·전남 밀렵감시단·전문 암사 등으로 조사팀을 꾸려 생일도에서 현장 확인 조사 후, 멧돼지를 '괴물'로 지목하고 소탕작전을 벌여왔다. 군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멧돼지 소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유해조수 포획하기를 내준 상태다.

생일도는 464가구 916명이 다시·미역·전복 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48가구가 900여 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무등산 새인봉 인근에서

4년간 움막생활 중凍死

무등산에 몰래 움막을 짓고 4년이나 숨어 지내던 50대가 동사(凍死)했다.

지난 1950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태어난 조모(55)씨, 조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전사해 유복자로 자랐다. 그는 흘어진 나무와 담양에서 살던 중 지난 2002년 간 질환을 심하게 앓게 되자 '기독 치유'를 한다며 혼자 무등산으로 들어갔다.

터를 잡은 곳은 동구 운립동 무등산 동적골 끝자락에서 새 인봉 쪽으로 20여 분가량 들어간 7부 능선의 산 속.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이곳에 비닐로 4평 낮았던 움막을 짓고 아궁이를 만들었다. 전기도 가스도 없이 밤에는 촛불을 켰다. 죽은 나뭇가지며 낙엽을 긁어모아 난방을 했다. 먹거리며 반찬 약 등을 통장으로 입금되는 매달 70여만원의 유공자 연금으로 충당했다.

외로운 산속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씨가 숨진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는 도립공원 경계 밖 지점인데다,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주혁기자 jhlim@kwangju.co.kr

법원가 '개인파산' 유치 경쟁

광주지법 올 6,937명 신청... 작년의 6배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전담 직원 배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해 있는 속칭 광주의 법조타운인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앞, 월요일인 11일 오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개인파산 상담을 위해 K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3년여간 외식 프랜차이즈점을 하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빚더미에 앓자 개인파산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 여성은 "경기가 곧 풀리겠지 하는 생각에 적자가 나타나도 은행 빚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했지만, 2년이 지날 무렵 가게 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세금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울먹였다. K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날 하루만 10여 명의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상담을 위해 찾았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속 개인파산 신청

1,300억대 딱지어음

유통시킨 10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이 회사를 명의로 딱지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여·6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9월 하나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이북오도기회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원대 딱지 어음 수표와 1천억원대 딱지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식장 전복 훔친 4명 검거

완도 해경은 11일 서남해안 일대 섬을 돌며 공동양식장의 전복 등을 훔쳐온 채모(45)씨를 특수찰도 혐의로 구속하고 잠수부 김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8일부터 최근까지 장흥·진도·완도군 서남해안 일대 섬 지역 해안가 및 어촌마을 공동 양식장에서 총 180회에 걸쳐 전복과 해삼 등 5천300여 kg(시가 1억 6천여만원)의 수산물을 훔쳐 강진수협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8일부터 최근까지 장흥·진도·완도군 서남해안 일대 섬 지역 해안가 및 어촌마을 공동 양식장에서 총 180회에 걸쳐 전복과 해삼 등 5천300여 kg(시가 1억 6천여만원)의 수산물을 훔쳐 강진수협 등에 판매한 혐의다.

/연합뉴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우는 지난해 68.9%에서 올 들어 45% 선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신청자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등을 찾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등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수입료 100만 원에 채권자 수와 채권액수에 따라 대행 절차 비용 30만~100여만원 등 건당 200여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들은 100여만원에 서류 대필과 부채 증명서, 서류 보정 등의 대행을 해주고 있다.

N법률사무소 김모(33) 사무장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은 한 달에 200여 건의 개인 파산 상담이 들어온다"며 "대부분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대출을 낭비해온 사람들이 많고 업종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엔 의사와 경찰, 교사 등 전문직종과 독신녀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빈곤층 법률 서비스

개인파산·희생 지원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희생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파산·희생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만원, 개인희생 신청자에게 35만원씩 지급해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장애인이나 이혼·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한편 개인희생 신청자는 5만6천 명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1천231명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나우침 6999



광주지검 직원들

달동네 연탄배달

범죄자를 다루는 '싸늘한' 검찰청 사람들이 연탄을 나르며 달동네에 훈훈한 젊을 나눠줬다. 광주지방경찰청(검사장 명동성) 직원 24명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회장 주기원)와 공동으로 11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명동성 광주지검장이 직접 참석해 겸사 및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인 가정 등 40여 가구에 연탄 300장씩을 배달했다. 또 기소유예자·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36가구에 대해서도 김장 김치 100kg을 전달했다. 행사에 들어간 돈은 광주지검 직원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해 마련했다.

명 검사장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랑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1차례씩 광주지역 무료 급식시설을 선정, 급식비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 =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평생신도시의 중심특관을
누리는 3,636 회대단지!

(평생신도시 평생면 토지와 토지)

수원신도시 평생면

062 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국제화된 차별주의를 극복해 드립니다

누구나 평생을 새길 수 있습니다.

02-722-1232 www.ikpeo.or.kr

한국언론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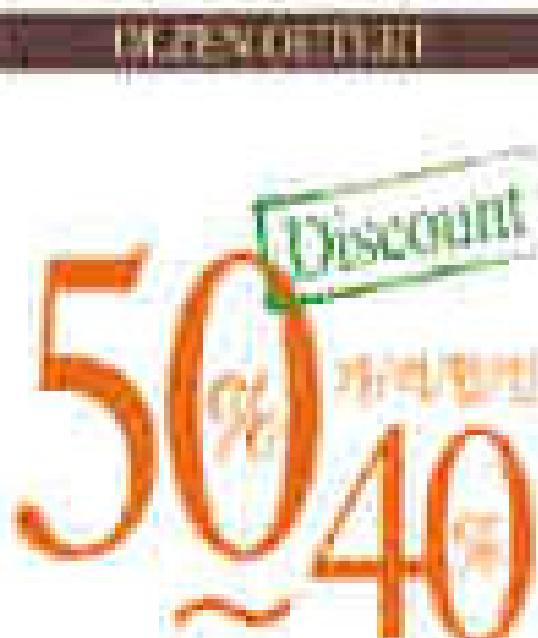
옛 동거남 지갑서 140만원 '슬쩍'

○...광주 서부경찰은 11일 옛 동거남과 헤어진 지 1년 만에 만나 하루 동안 데이트를 즐긴 후, 돈을 훔쳐 달아난 송모(여·25)씨를 첫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 17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A모텔에 4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노점상 애인 유모(39)씨와 함께 투숙했다가 유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지갑에서 현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송씨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120만원을 체납하는 등 얄미운 행동을 해서 따질 게 많았다가 지갑에 돈이 있어서 가져갔다"며 자신을 신고한 유씨에 대해 내심 서운한 표정.

/서민정기자 viola@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국내최초 국제화된 첨단업체
결혼정보 111